

金海葦山地域 傳統住居의 調查研究

A Study on the Vernacular Dwellings in Noksan area, Kimhae

徐 京 泰*
Seo, Kyung-Tai

< Abstract >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rnacular dwellings in Noksan area which has been a part of Kaya cultural realm. Through the analyses of its environments and several practical unit pla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rnacular dwellings in this area are as below.

The dwellings have been transfigured from [Omaksari] hut which is generally the smallest house form in Korea. The noticeable vernacular hut in this area is smallest 4-kan double-wing plan which is irregular 田 shape, but they call it single wing and 2-kan plan. Leed which can be obtained easily in this area is used on roof and in wall. Timbers used in construction are very slim or rather weak, but they were treated carefully. The chimney form in this area seems the results of minimizing of their being from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 but also it seems an effective method of heat control.

In conclusion, we cannot deny that the house form of this area seems affected by its exclusiv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1. 序 言

한반도는 비교적 좁은 땅덩이면서도 유난히 많은 산과 냇가 있어, 각 고장들은 제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文化란 인간사회의 생활양식이니 그 지역 고유의 환경조건에 따른 특이한 외부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조건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그들의 體驗이 統合

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많은 문화의 유형중에서도 住居의 形態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을 담아온 文化의 結晶體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에는 거주인이 영위하는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생산구조, 의식구조 등의 인문사회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쉽게 교감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문화의 단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한반도의 남단이면서도 낙동강이라는 커다란 강을 낀 김해녹산지역으로 1989년부터는 釜山市 江西區에 편입된 곳이다. 오랫동안 金海郡에 속하여 고유의 文化圈域이

「이논문은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정희원, 부산여자대학교 부교수.

하고 있어 기후적으로 보아 난대성 기후지역에 속하며 기후요소의 분포특성에 있어서도 해양성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4℃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온난한 편이고, 최한월(1월)기온도 0.9℃로서 일평균 기온이 0℃이하인 연평균일수는 10일 미만이며 최난월 평균기온은 25.5℃로서 연교차는 23.3℃가 되니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일최저기온이 0℃이하인 날수가 연간 60일 이하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며 연평균 일교차는 8℃로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6mm로 전국과 비교할 때 많은 편으로 특히 여름철에 80%정도의 집중우를 보인다. 풍속은 연평균 4.4m/s으로 특히 강풍의 출현빈도가 높아 사주의 형성등 이 지역의 지형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⁴⁾

녹산의 지형은 대체로 산지와 그로 둘러싸인 저평한 충적분지, 해안의 간석지 및 연안 사주 그리고 과거 해안에 접하고 있던 산지경사면의 해식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음부락을 중심으로 보면 ㄷ자형태의 산지와 그로 둘러싸인 분지로 구분되며 그 동쪽에는 조만강과 서낙동강이 합류하면서 둔치도가 발달하고 있다. 산지 지형은 대체로 경사도가 커 사면의 토지이용이 미약한 편으로 취락 역시 산간이나 경사지를 피래 10-20m정도의 고도를 따라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사리는 현재 산간으로 깊숙히 들어간 분지의 모습이지만 원래는 앞서의 설명에서와 같이 해안이었으므로 취락의 분포고도는 10m 정도로 연구지역내의 다른 마을과 거의 일치한다. 현재 녹산지역의 주요경작지인 범방, 미음, 생곡 등의 마을앞 논은 원래 대부분 갈대가 서식하던 저습지로서 三角洲沖積物로 구성되어 비옥한 편이나 염도에 높아 갈수기에는 지장을 받았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제방이 축조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즉 지금은 비옥한 농지인 이 논들은 최근까지 올바른 개간을 하지 못한 채 갈대가 무성한 염생습지로 방치되어 왔던 것이니 이 지역의 농산물생산량은 빈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가의 송정마을 역시 소규모의 만입으로 오랫동안 염전동안 염전이 위치하였고 특히 해수가 마을 안쪽까지 깊숙히 드나 들었다 한다. 이러한 저습지에 자생하던 갈대는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되었으니 주로 공예품, 지붕, 바재, 염전의 제방축조용, 연료 및 기타 재료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였다. 인근의 명지 영강포구에는 최근까지 갈대장이 섰으며 갈대는 곡식과도 물물교환되었다고 한다.

화전부락과 그 남쪽의 신호부락까지의 干瀉地는 간척사업으로 차츰 육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의 간척지에서는 최근 김양식과 굴양식이 성행하는데 특히 김양식이 우세하다. 김양식이 시작되기 전의 간척지는 염전으로 이용되었는데 녹산 동쪽의 낙동강 삼각주에 해당하는 명지의 천일제염업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나타나 있고 그 역사는 300년 정도로 구전되고 있지만 1900년 경에 이르러 녹산지역의 송정, 사암마을앞 일대에 제염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대에 과일생산에 따라 민영염전은 축소되었고 특히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염전하게 몰락하게 되고 대신 김양식업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적 측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며, 고고학적인 유구의 발굴에서도 漁撈民의인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나고⁵⁾, 조선시대 김해지역관계 문헌에도 소금의 생산과 그 유통(水運), 어패류 등 바다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산물들이 기재되고 있다.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세산을 중심으로 한 논농사도 최근에 경작되기 시작한 점으로 볼 때 결국 이 지역의 생업구조는 고래로부터 어로부문의 비중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가락국(금관가야 또는 대가야)의 옛터로, 6가야의 맹주국이 자리한 곳이며 특히 허황후의 초행로에 관한 설화와 지명이 아직까지 전해지는 바와같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이 곳은 가야시대에 김해로 통하는 수로상의 요로였다고 추정된다. 도로가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사정으로서의 육로보다는 해상을 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보아 당시의 문화의 교류는 바로 이 지역을 회랑지로 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日本書紀에도 인근의 웅천, 대대포 지역이 신라와 백제간의 영토분쟁지로 기록되어 있는⁶⁾

5) 지역내 고분군의 유구에서는 봉토나 석실바닥에 굴껍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장품도 어로문화물 보여 준다.

6) 「日本書紀」繼體 22年紀 4月條 참조, 韓國文化研究 4輯,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p.253.

4) 潘鑑夫 외 4인, 앞글 p.8.

등,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영토분쟁을 끊임없이 벌인 기록이 많으니 이 일대에 그만큼 거점확보의 요충지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통일신라시대의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이에 대해 오늘날의 사학계에서는 통일신라가 옛가야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그들의 사관에 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사정을 알려주는 조선초기에 간행된 지리지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최말단 수취 지배구조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해도호부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다수의 부곡, 소, 향 등의 특수행정구역의 하나로 省火禮鄉(현 생곡)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신라말기에 후백제에 속하였던 이 고장을⁸⁾ 비롯한 많은 지역을 속현이나 천민집단으로 재편한 것과는 관련된다. 또한 고려말까지 이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해안지대는 왜구의 극심한 발효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토지는 황폐화되고 농민들은 도산 유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왜구들은 특히 고려 정부의 수취교역망이었던 漕運路를 차단함으로써 봉건국가의 재정수입을 현저하게 줄게 하였다. 특히 당시 부산(동래)지역과 이 고장을 포함한 金州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禡王代에는 조운의 차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漕倉을 폐지하고 육로를 개척하거나 기존의 조창에 성을 쌓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김해지역의 佛巖倉에 漕轉城을 쌓은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진다.⁹⁾ 따라서 금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도 왜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이 지역은 안팎으로 수탈이 계속해서 자행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곳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이전의 15-16세기에 조선정부는 끊임없는 왜구로부터의 시달림을 외교적으로 처리하고자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세종8년(1426년)에 부산포(편 부산), 제포(현 웅천), 염포(현 울산)의 3포

가 개항되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일본사신을 접대하는 수참이 설치되었다.¹⁰⁾ 당시 일본사신이 삼포에서 서울로 가려고 할 때 통로의 하나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이용하였으니, 명지도와 인근한 鷲梁에 왜선이 정박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구랑에 있던 수참은 취량을 거친 일본사신들이 머문 장소였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국과의 공식적인 외교차원이었고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어 항상 조정에서도 골칫거리였고 양민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¹¹⁾ 조선정부로서도 공식적으로는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지역에 省火也 烽燧臺를 두어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을 방지코자 하였고¹²⁾, 금단곶에 성을 쌓고 군사를 두어 왜적을 방비하였다.¹³⁾

이상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을 종합해 보면 이 고장은 고래로부터 최근까지 농경업보다는 어로산업에 치중하여 온 지역이며, 한반도의

- 8) 「高麗史」卷1 太祖7년8월조에 의하면 현재의 부산지역은 후백제의 관할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高麗 中後期の 釜山, 「釜山市史」 제1권, 1989. p.566.
-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金海都護府 山川條 “明月山 在府南四十里山下仇良村有見助嚴水站以接倭使” 현재에도 수정마을의 입구에는 水站橋라는 다리가 있다.
- 11) 擇里誌 慶尙道 條에서 李重煥은 대구 동남에서 동래에 이르는 낙동강변에 있는 고장이 토지는 비록 비옥하나 왜곡에 가까와 살 곳이 되지 못하며, 왜구의 주축인 대마도의 왜인은 박귀와 같은 존재로 이들을 달래 침입치 못하게 함은 고식적이며 구차한 일로 차라리 토벌하여 복종케 함이 상책이라 주장하였다.
- 12) 「慶尙道續選地理志」金海 烟臺烽火條. 이곳의 봉화는 김해의 익산과 밀양을 거쳐 영천으로 연결되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 운무로 흐린 날에는 금단곶보의 파말바를 이용하여 적의 침입을 통보했다.
- 1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金海都護府 關方條 “金丹串堡 在府南五十二里 石城 周二千五百六十八尺 內有大井 設櫓管留戍” 이미 임란이전에 이 고장의 앞에 있는 가덕도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최전진 전초기지가 설치되었으니, 지금도 방어용시 설인 孩子的 유구가 남아 있는 天城堡를 두었다. 후일 이순신장군도 전투중 그 곳에 머문(임진년7월) 기록이 있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金海都護府 古蹟條 참조.

최남단에 낙동강이란 중요한 수로를 낀 요충지로서 삼국시대에서부터 국가간의 분쟁으로 시달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해협 건너의 일본 열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의 변방으로서 왜구로부터도 끊임없는 침입과 노략질을 당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3. 傳統住居의 觀察

3-1. 聚落의 考察

옛 가야문화권에 속하며 그 중심지역인 김해와 멀지 않은 녹산지역은 이 고장의 가달과 송정의 고분군과 범방, 가달, 와룡 등에 산재한 패총 등의 분포로 미루어 이미 선사시대로부터 인류가 주거해 온 것으로 판명된다. 미음리 일대인 현재의 태야벌은 과거 김해만의 입구에 해당되는 수심이 얕은 개펄만으로서 그 바다의 중앙에는 현재 세산이라 불리우는 조그만 섬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으며, 주위의 산록들이 제공하는 아늑한 지형과 함께 수량은 적지만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다고 하는 샘들은 촌락의 입지로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다.

범방, 장전마을은 가장 오래된 마을로 보여지는데, 이 곳은 세산을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만에서 가장 양지바른 땅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패총을 끼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구나 지금은 낡은 집이 거의 없고 대개가 현대식 주거로 개조되는 등부의 축적이 가장 양호한 인상이다.

와룡, 탑동 등의 마을 또한 오래된 마을로 여겨지는데, 삼층석탑 뿐만 아니라 그 좌향이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우수하여 자체로서는 소국이지만 매우 아늑하며, 세산너머 낙동강 건너까지 펼쳐진 경관은 장관이다.

수정마을은 과거에 솥솥이 있었던 곳으로 수륙교통의 요지에 발달한 취락이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쇠퇴한 마을이다. 이에 반해 구랑 등은 좌향 등 취락의 여건상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송정과와 연결도로상에 있어 현재 녹산 일대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데, 이는 세산을 둘러싼 개펄이 태야벌이라는 농경지로 바뀌고 송정과와 문물교환 등의 연결이 빈번해지면서 그 입지가 강화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가달마을 뒤의 고분군은 양지바른 곳에 자리

하고 있지만 그 아래의 생곡, 중곡마을 등은 뒤로 산록을 끼고 북향으로 자리하여 고분군보다 훨씬 일조권이 빈약하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북향으로 굳이 좌향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마을은 앞서의 범방, 와룡보다는 후대에 생성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배산임수라는 우리민족의 기본적인 취락속성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3-2. 住戶의 考察

세산을 중심으로 있는 범방, 미음, 중곡 등의 마을들은 이들로 둘러싸인 태야벌이 원래 개펄이었으니 현재 해안에 위치한 사암, 송정 등의 마을들과 최근까지 같은 조건의 해안마을이었고 지척간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굳이 내륙과 해안으로 구분하지 않고 관찰토록 한다. 전반적으로 이 일대에서는 영남지방의 다른 고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의 상류전통주거는 볼 수 없었고, 삼칸집의 규모를 벗어나는 중규모의 집들은 몇 채 있었으나 이들 역시 서민주거의 모습이지 반듯한 정형의 반가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각각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안내로 오래되었다고 인정되며 토속적 요소를 지녔다고 여겨지는 전통주거들의 실례를 통해 그 특징들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實例 1. 와룡마을 권씨택 : 그림 2>

와룡마을의 권씨택은 오막살이의 원초적인 형태이다. 정지와 방이 각각 한칸씩 있으며, 앞의 퇴는 15cm 정도의 높이로 거의 의식되지 않을 정도의 흙바닥 그대로 쓰이며 이 고장에서는 토방이라고 불리운다. 이 집에서 하나만 있는 기둥은 퇴앞에 있는 다듬어 지지 않은 채 사용된 지름이 약 10cm정도인 가는 부재로 차라리 버팀목으로 보인다. 벽은 흙으로 된 토담집이며 용마루는 극히 짧아 지붕이 그냥 얹혀 있는 듯한데, 전체적으로 원초적인 모습이다.

<實例 2. 와룡마을 구씨택 : 그림 3>

이 집은 방 두칸에 정지가 반칸이다. 앞의 권씨택과 같은 배열로 작은 방을 추가하였으나, 정지는 토담이 아닌 돌담으로 둘러싼 허술한 모습이다. 역시 앞퇴가 있어 레벨은 마당에서 90cm정도 돌우어져 등자주가 없는 평상이 깔려

있으나 그 짜임새는 매우 조잡하여 전에는 그냥 흙바닥이던 것으로 보인다. 퇴의 정면 중앙기둥만 지름이 15cm정도이고 양쪽의 기둥 두 개는 10cm정도로 아주 가늘다. 벽은 흙벽인데 아랫부분은 돌을 끼워 쌓았다. 벽의 모서리에는 앞의 권씨택과 마찬가지로 기둥이 없고 특히 뒷벽은 상당히 기울어지고 비뚜른 허술한 모습으로 각방에서 하나씩 조그만 봉창을 내고 있다. 큰방 앞의 퇴와 정지사이에는 낮은 흙벽이 있으며, 정지앞의 한켠에도 흙벽이 있는데 전에는 거적으로 돌렸던 것이라 한다. 통대나무의 서까래가 일부 보이고 그 위에 갈대산자가 얹혀 있는데, 원래는 초가지붕이었으나 지금은 슬레이트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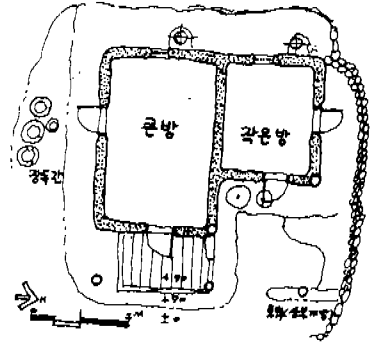


그림 3. 와룡마을 구씨택

<實例 3. 옥포마을 이귀남씨택 : 그림 4>

앞의 실례 1에서 실례 2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정지+방의 구성에서 횡분할되어 최소규모의 고방 내지 정지방과 퇴를 확보한 오막살이이다. 정지공간이 모서리의 나약한 기둥을 벗어나 쌓아진 흙벽으로 확대되고, 고방과 방의 뒷벽도 여전히 토벽으로 되어 있지만 방은 심벽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런 유형에서 정지와 고방 그리고 방의 뒷벽까지를 연결하는 기억자부분의 벽체가 흙벽으로 구성된 집들을 옥포, 가주, 화전, 사암 그리고 송정 등의 인근마을에서도 채집되었다. 많은 집들의 경우에서 볼 때 정지의 출입문은 없는 것이 원형으로 짐작된다. 퇴는 여전히 마루가 깔리지 않는 흙바닥의 토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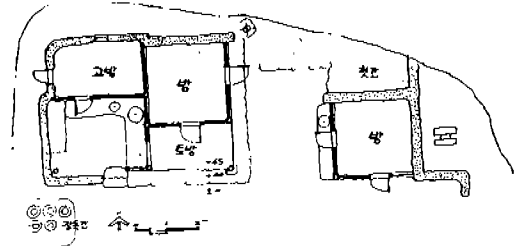


그림 4. 옥포마을 이귀남씨택

깊이로 깔리고 동측벽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다. 큰방 뒤로 작은 수납장을 두면서 정지 뒤의 고방을 확대시키고 옆으로도 창고를 설치하는 등 수납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굴뚝이 죽담의 전면에 노출되어 연기가 낮게 깔리게 되어 있는데 이는 화전, 사암 등의 인근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앞의 경우와 같이 지붕의 물매가 급한 만큼 실내의 천장도 급한 경사를 지녀 키보다 낮은 부분이 상당하여 단칸방인 실내는 좁은 편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갈대로 된 새나래지붕과 급한 지붕물매, 낮은 처마, 특히 정지와 한칸방의 구성이 횡분할된 평면구조는 이 고장에서만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오막살이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벽체는 흙벽을 벗어나 심벽이 되어 나름대로는 정돈된 유구라고 할 수 있다.

<實例 4. 신호마을 김종민씨택 : 그림 5>

이 집은 소규모의 어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앞의 경우와 같은 유형의 작은 오막살이지만, 퇴는 흙바닥 대신에 마루로 큰방앞에 너 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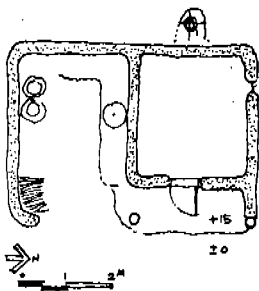


그림 2. 와룡마을 권씨택

<實例 5. 화전마을 권오순씨택 : 그림 6>

—자형집으로 모든 기능이 한 채내에서 이루어진다. 빈한한 민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퇴간은 흙바닥의 토방이다가 최근에 시멘트로 발라져 있다. 정지+방+방에 이어 헛간+번소까지 구

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고장의 집들은 대개가 방마다 아궁이와 굴뚝을 따로 두고 있는 점이다. 처음에는 방을 하나만 지었다가 추후 방을 추가하였거나, 애초부터 열효율 등을 고려하여 아궁이를 따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역시 흙벽으로 된 정지는 상부에 시렁이 있고 큰방쪽의 상부에는 여느 집과 다름없이 다락이 있으며 정지와 토방과의 사이에는 선반장을 달아 양쪽에서 모두 용이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實例 6. 와룡마을 김상용씨댁 : 그림 7>

김상용씨댁은 방 두칸에 정지가 한칸인 평면으로 앞의 경우보다는 발달된 형태이다. 구씨댁과는 달리 정지가 반듯하게 한 칸이나, 정지에서 올려다본 지붕내부의 모습은 방 두칸의 용마루보다 낮게 투박한 보를 용마루에 이어 정지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원초적인 모습이다. 전통주거의 민가형태에서 방보다는 항상 하위 개념으로 설정되는 정지의 모습은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다. 정지벽은 방들의 뒷부분과 같이 토벽이지만 방들보다는 흐트러져 축조되고, 전면쪽으로는 앞의 구씨댁과 같이 낮게 정지내부

를 가리고 있다. 방의 뒷벽에는 돌을 많이 사용하여 기둥없이 축조되어 있고 좌측벽에서는 흙벽속에 대나무와 갈대를 엮어 심으로 한 것이 보이며, 집의 정면에서만 허술한 기둥이 사용되고 있다. 큰방앞의 퇴를 형성하는 두 개층 하나는 지름이 17cm정도로 네모지게 거칠게 다듬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11cm정도로 정면은 네모지고 뒷면은 그대로 두었고, 바깥의 좌우 두 개는 다듬지 않는 가는 부재 그대로 사용되었다. 안방앞의 퇴는 마당보다 90cm정도 높고 마루가 깔려져 있으며, 지붕은 대나무 산자위에 갈대와 알매흙을 올리고 짚으로 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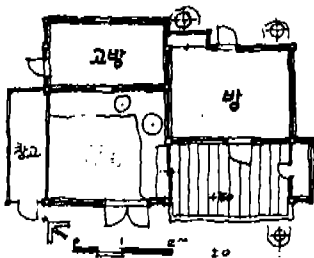


그림 5. 新湖마을 김종민씨댁



<사진1> 신호마을 김종민씨댁 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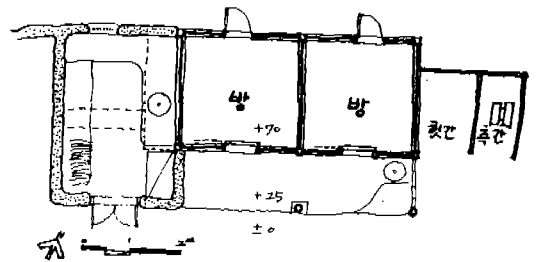


그림 6. 화전마을 권오순씨댁

<實例 7. 미음마을 김기봉씨댁 : 그림 8>

김기봉씨댁은 앞서의 집들보다 훨씬 정형의 평면을 가졌다. 반듯한 마루뿐만 아니라 정지공간이 훨씬 크게 확보되었고, 특히 수장공간이 발달되어 있다. 정지의 아궁이 상부와 뒤편은 물론 마루에서 큰방으로 들어가는 상부에도 시렁이 있고 큰방에서도 문턱상부와 뒷문상부에도 시렁이 있다. 큰방에서 정지부탁위로도 벽장이 있거니와, 마루의 끝에도 판장으로 된 장이 설치되어 있다. 앞서와 같이 방들의 모서리에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지의 둘레는 흙벽으로 되어 있다. 정지의 출입구는 판장문이고 상부는 막히지 않아 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다. 지붕 산자는 대나무를 약간 넣은 갈대로 엮었고 벽에도 갈대를 엮어서 심으로 한 것이 보이는데, 지붕마감도 원래는 갈대로 이은 새나래집이다.

<實例 8. 중곡마을 최조갑씨댁 : 그림 9>

이 집은 서남서방향으로 좌향하고 있고, 앞의 김씨댁과 같은 배열이다. 중곡마을의 전체적인

좌향은 북향이더라도 이 집은 산자락에 자리하며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정지를 앞서의 평면과 비교해 보면, 외벽이 흙벽이 아닌 심벽으로 되어 있고, 외측으로 선반이 설치되어 수장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다. 방의 깊이가 앞서의 김씨택은 8자 정도였으나 여기서는 10자를 확보하며 상당히 깊어졌고 두 방에서의 수납이 확실히 확보되었는데, 이 고장에서는 겹집으로 인식된다. 제시된 평면의 본체와 15m정도 거리를 두고 앞쪽으로 외양간에 함께 한 사랑방을 둔 아랫채는 간결한 구성이다. 이는 앞서의 서민주거에서 약간의 부의 축적으로 아랫채를 확보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實例 9. 화전마을 김태명씨택 : 그림 10>

이 집 역시 一자형집으로 아랫채를 두고 있으며 마당에는 하절기 취사용의 아궁이가 있다. 정지에서 불을 때면 장독대옆에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

아랫채방은 본채와 마주보는 북향이며 축사와 한 지붕을 쓰고 있다. 아랫채의 방은 가로가 일곱자 세로가 일곱자인 지극히 좁은 방을 가지며 처마가 매우 낮다. 아궁이는 난방용이며 취사는 안채의 정지에서 모두 처리되고 있다. 이 집의 아랫채방은 본채의 안방보다는 번거롭지 않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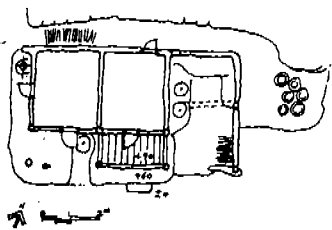


그림 7. 와룡마을 김상용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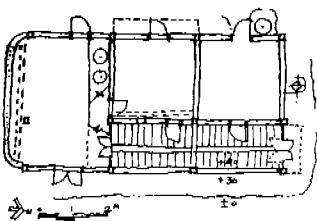


그림 8. 미음마을 김기봉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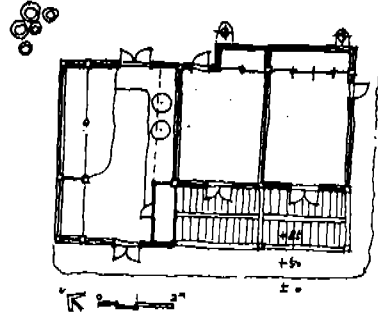


그림 9. 중곡마을 최조감씨택

의 이유로 대대로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던 곳이었다고 하니 다른 고장 일반민가에서의 건넌방이나 상방에 상응한다고 보여진다.

<實例 10. 중곡마을 최술근씨택 : 그림 11>

최술근씨택은 앞의 최씨택과 같이 서남향이 다. 앞서와 같은 배열의 평면인듯 하지만 큰방과 작은방사이에 청방을 넣어 안청이라 부르고 있다. 안청의 외벽은 뒷부분에서는 판장이지만 앞쪽은 심벽이다. 정지는 애초보다 중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큰방에서도 수장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안청과 함께 내부에서 시령을 갖고 있다. 주민은 안청을 제당이라고도 하며 제사를 모시는 공간이라고 한다. 큰방앞의 퇴는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당에서 110cm정도의 레벨로 마루이다. 갈대로 산자를 한 팔작모임지붕은 원래 새나래집이었으나 최술근씨택으로 바뀌었다. 이 집에서도 같은 마을의 최조감씨택과 같이 매우 서민적인 형태의 사랑채를 두고 있는데 다른 고장에서의 아랫채에 해당되는 기능을 한다. 본채보다는 허술한 부재의 사용과 치목으로 방 두개와 농기구를 두는 헛간을 두고, 앞뒤로 퇴가 구성된 모습이 특징이다.

중곡마을의 최만기씨택에서도 보다 큰 규모의 아랫채를 볼 수 있는데, 이 집은 완전한 북향집이지만 이 고장에서는 보기 드문 백석지기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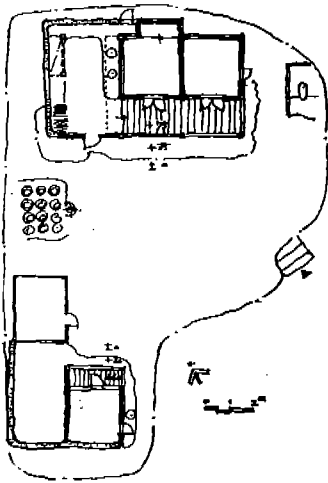


그림 10. 화전마을 김태명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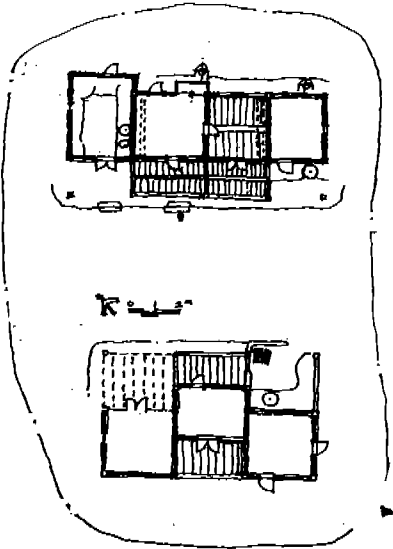


그림 11. 중곡마을 최술근씨댁

4. 分析 및 論議

이상의 실례를 고찰해 본 결과 이 고장의 전통주거 평면유형은 모두가 소규모의 오막살이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 변용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방이 있는 소위 「남동해안형」으로 14) 불리우는 유형도 채집되었

다.

가장 원형으로 보여지는 빈한한 오막살이집에서는 별도의 수장공간이 없으며 다만 흙바닥이라도 애초부터 되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되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토방으로 불리우며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거나 꼭물이나 물건을 두는 곳이라 한다.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기본틀내에서 조금씩 공간을 확보하거나 다듬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으로는 수납공간의 정형화나 조잡하지만 마루 깔기 등이며 비바람이 샌 고장이라서 울릉도의 우데기처럼 집둘레에 「마재」라는 시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납공간인 벽장은 정지 상부뿐만 아니라 방에서 밖으로 상부로 돌출되어 조성되고, 기둥을 벗어나 흙벽을 축조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지와 고방 등의 모습은 최소한의 평면형에서부터 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간 것이라 하겠다. 남동해안형으로 불리우는 실례 10의 경우외에는 삼칸집에서 횡의로의 확대발전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고¹⁵⁾, 아예 아랫채를 분리해 나가는 모습만 관찰되었다. 이는 이 고장의 기술환경을 포함한 주거의 보수성 내지 토속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실례 3,4의 경우 횡분할된 겹집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이 고장의 복수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의 집을 백역상으로는 홑집으로 분류하고 있고, 칸으로는 두칸집 혹은 최소한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단칸집 혹은 단칸오막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오막살이에서 추후 기능에 의해 요구된 평면분할로 인하여 겹집배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단칸 오막살이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¹⁶⁾ 그러나 반칸이라도 마루가 반듯하게 구성되면(실례 8,10) 겹집이라고 한는데 이는 근세에 이르러 조금의 여유가 있는 집에서의 경우이다. 반딛집

15) 이 고장의 민요중 성주풀이에서도 삼칸집이 기본임을 암시하고 있다. "...저산주령을 내리잡아 용의머리 터를 닦아 석사세치 터풀 도아 삼칸집을 널리 세워 삼오위에 평경달아 동남풍이 드리부니 평경소리 요란하다..."

16) 류우규일대에서도 가옥의 평면이 확대되는 경우 먼저 앞뒤로 분할된(횡분할)다음에 칸수가 늘어나는 종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民音社, p. 483.

14) 曹成基, 韓國南部地方의 民家에 關한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5, pp. 55-71.

이나 칸반집 혹은 전후뒤틀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一자형주거형태는 일인학자 野村孝文이 「一般型」 혹은 「基本型」이라고 할만치 한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¹⁷⁾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실례 3,4와 같은 주거<사진 1>는 타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최소한의 겹집형태로 이 고장에서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례 1,2에서 발전된 동일한 흐름을 지녔다고 보여지며, 주민의 증언으로도 겹집이 아닌 홀집지역의 두칸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례2에서는 작은 방이 정형으로 정착한 모습이지만 실례 3,4에서 정지뒤의 방은 정지방이라 불리우지 않고 고방 혹은 「손고방」이라고 불리운다. 손고방이란 별도의 부속체에 있는 고방이 아니라 정지에서 바로 손쉽게 쓰이므로 그렇게 불린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다. 이러한 고방은 암만 보아도 취침공간으로는 너무나 좁게 보이고 오늘날에도 침실로 사용하는 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기에 머느리가 거저하는 침실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궁이와 여기에 연결된 굴뚝도 미흡한 모습이지만 단순한 수장공간이라면 굳이 붙을 때는 아궁이를 두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관례를 생각하면, 이는 방이 하나뿐인 오막살이집에서 가족구성의 확대에 의해 몸만 가리는 최소한의 침실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라 여겨진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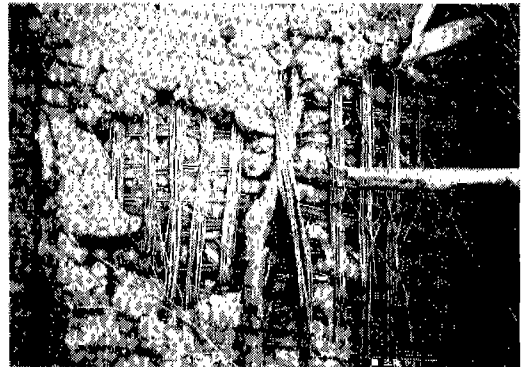
보다 규모가 큰 집이라 할지라도 방들은 8자남짓되는 것이 최대크기이며 대개 큰방이 안방의 역할을 하며 작은방보다 크고 사잇문은 없다. 이 고장에서는 안방, 건넌방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고 큰방, 작은방으로 호칭하여 왔다고 한다.

많은 오막살이들은 담집인데 돌을 쌓아 흙을 바르는 방법과 흙과 돌을 한층씩 번갈아가며 쌓는 방법이 있는데, 앞의 경우가 더 튼튼하다하여 「경담집」이라고 한다. 집의 정면과 방에 목재기둥을 사용하여 담집의 모습을 벗어나려는 듯 하나, 방의 뒷부분을 포함한 집의 후면과 정지, 고방은 계속 흙담으로 축조되었다.

이 고장 민가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다른 지방

에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가늘거나 조악한 부재이나 그 허술한 부재의 조합들은 나름대로의 인간미가 있다. 특히 부속채동에서 처마를 받치는 기둥은 Y자형태의 가지가 곧잘 쓰이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갈대는 「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최근까지 인근의 명지 영강포구에서는 갈대장이 섰으며 곡식과도 물물교환되었다고 한다. 엽전의 제방축조에 개흙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비바람의 침입을 막는 마재의 재료로도 쓰이던 갈대로 지붕을 이은 집을 이 고장에서는 「새나리집」이라 부른다. 새나리집은 여유가 있는 집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초가집보다 수명이 긴 장점이 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기술자가 없어 잇지를 못한다고 한다. 아직도 몇 집 남아있는 새나리집은 지붕이 급한 경사를 지니며 비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마는 낮아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갈대는 해안지역이라 모래보다 돌을 구하기 힘든 이 고장에서 벽체의 재료로도 쓰이니 열 개 정도를 묶어 이를 다시 가로 세로로 엮어 벽체의 심벽을 만드는 데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사진2> 갈대로된 심벽



18) 오늘날의 수준에서의 적정규모는 지난날의 빈한한 민가에서의 최소한의 규모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안동 도산서원의 도산서당에도 정지안에 최소한의 침실이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좀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임이 사실이다.

17) 野村孝文, 朝鮮의 民家, 學藝出版社(京都), 1981. p.146.

<사진3> 전면 죽담이 있는 굴뚝



한편 이 고장에서는 굴뚝이 죽담부근에 낮게 축조되어 노출되거나<사진3>, (신호 김종민, 옥포 정치화 씨택 등)퇴의 아래(옥포, 가주 성명미상 등), 뒤에 굴뚝이 있으면서도 마당쪽으로 나와 있는(화전 김태명, 사암 성명미상 등) 二孔式 굴뚝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대개의 부엌이 서쪽에 있는데 셋바람이 불면 굴뚝이 역류작용으로 아궁이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공식 굴뚝은 역류현상이 있어도 아궁이의 화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효율의 제고를 생각한다면 이 고장의 많은 주호들에서 각방들이 모두 별도의 아궁이와 굴뚝을 가진 것도 이해가 된다고 본다. 온돌의 배기는 자연통기력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람에 의한 통기력과 굴뚝속의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에 의한 통기력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바람의 방향은 흔히 역류현상을 일으켜 굴뚝의 배연효과를 크게 저하시키기도 하며 아궁이에서 들어온 열기는 굴뚝으로 직진하려는 성질 때문에 개자리를 파서 저항을 주어 확산효과를 얻고 있지만, 굴뚝은 아궁이와 인접할수록 배연상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이 고장에서의 마당으로 길게 빠져나온 굴뚝도 이해가 된다.

朱南哲교수에 의하면 한국건축의 굴뚝의 종류는 간이형, 독립형, 복합형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도 간이형은 본격적인 굴뚝의 전단계로서 처마밑에 간단한 구멍을 내거나 뒷마루밑에 구멍을 내어 배연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⁹⁾ 曹成基교수는 한국민가의 굴뚝의 원형은 대개 간이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²⁰⁾, 옥포, 가주 등의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마루밑의 개구부는 이러한 간이형굴뚝의 모습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러한 한국민가의 굴뚝처리에 대하여 李圭泰씨는 “한국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으로 석양관에 마을에 깔린 저녁연기를 든다. 이는 굴뚝이 예외없이 낮아 처마위로 솟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곧 연기는 처마에 부딪혀 아래로 까려야 하며 위로 솟아서는 안되게끔 한국인의 어떤 공동의식이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 천만년 살아오면서 굴뚝이 높을수록 불이 잘 든다는 이치를 시행착오로 터득하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국인의 어떤 무엇이 그러한 불편과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기를 남으로부터 은폐시키도록 집요하게 강요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한국인의 粗食패턴과 연결시켜 본다면 연기는 곧 식사를 짓는다는 표현이요, 식사는 인간본능의 육구충족이란 관점에서 이를 최소화시키는 韓民族의 人格主義 意識構造의 소치가 아닌가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²¹⁾ 이에 대해 曹成基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연부락은 임진왜란이전부터 끊임없는 외침과 내란을 통해서 시달림을 받아 왔으므로 이러한 피해의식은 자연부락의 정주(定住)에 있어서 본능적인 집단방어식으로 바뀌어져 집락의 문턱장치를 편성하게 되었다고 전체하고, 부락을 형성하는 하나의 단위인 민가의 굴뚝연기는 부락전체의 존재증명의 기호가 되므로 난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자기존재의 극소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풀이하였다.²²⁾ 특히 이 고장은 옛적부터 왜구의 잦은 침범이 잦았기 때문에 이 고장의 초가삼칸은 언제든지 미련없이 버리고 피난할 수 있도록 겨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추정하는²³⁾, 다른 측면에서의 고찰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보다 경제력을 확보한 주호단위의 배치에서 보여지는 별동의 건물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채라기보다는 삼칸집에서의 실생활에 의한 공간의 확대를 수용하는 부속채 내지 아랫채의 역할

20) 曹成基, 앞글, p.95.

21) 李圭泰, 韓國人의 意識構造(上), 文理社, 서울, 1977. pp.215-216.

22) 曹成基, 앞글, p.96.

23)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 4권, p.1147.

19) 朱南哲, 韓國建築意匠, 一志社, 서울, 1979, pp.

을 하고 있다. 가축을 수용하는 축사나 농기구를 수용하는 헛간과 함께 있는 방은 아들 등이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어른이 아랫채로 옮겨 머물고 본채에 젊은 주인내외가 점유하게 된다고 한다. 많은 오막살이집들이 아직도 담도 울도 없는 경우가 많고 타지방에서보다는 마당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어촌취락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애초부터 이 고장의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농경지가 빈약하여 그에 따른 생산규모 내지 경제구조 또한 빈약한 수준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고장은 경작지도 변변치 않은, 해안지역으로서 빈약한 경제구조를 가지며 고래로부터 안팎으로, 특히 왜구의 노략질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아온 사회적인 환경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언제라도 미련없이 피난할 정도의 최소한의 주거 내지 자기존재의 극소화를 고려한 주거형태를 꾸며 왔음은 쉽게 이해된다 하겠다.

5. 結 言

지금까지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요약된다.

이 고장의 전통주거 평면은 전반적으로 빈한한 오막살이형태에서 발전, 변용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갈대는 벽채나 지붕의 재료로 쓰였는데, 새나래집은 비바람을 고려한 급한 지붕물매, 낮은 처마 등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구조체는 다른 지방에 비해 조약한 목재로 구성되어 허술한 인상이지만, 목재의 생김새를 잘 이용한 가구법이 관찰되었다. 또한 전면으로 노출된 이공식 굴뚝등도 주목거리이다. 그리고 담장이 없거나 허술한 점 등으로 인한 주호의 단위가 명확치 않는 마당의 작은 모습은 농촌이라기보다는 어촌취락의 모습이다.

상기의 특징들은 이 고장만이 지닌 자연환경과 전통산업환경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고장 전통주거의 형성에는 그러한 자연환경의 영향 못지 않게 고유의 지정학적인 인문환경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즉 자기존재를 극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언제든 미련없이 피난할 정도의 오막살이주거 형태를 쉬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